

# 전북연구원 보도자료

아름다운 산하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연구원(T.063-280-7100/F. 286-9206)  
<http://www.jthink.kr>

- 문의 : 연구본부장 이강진 연구위원  
(063-280-7141)
- 담당자 : 전북학연구센터 박정민 부연구위원  
(063-280-7171, 010-9938-6018)

보도시점 : 2020년 6월 30일(수)부터

## 무성서원을 품은 칠광도, 보물로 지정하자

- 전북 출신의 어진화가 채용신이 무성서원이 포함된 칠광도를 그렸음
- 칠광도는 무성서원 일대를 그려 당대의 향촌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국가문화재로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음
- 칠광도를 보물로 승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야 함

[ 사진 및 영상자료 : 사진 자료 있음 ]

- 2020년 7월은 무성서원을 비롯한 한국의 9개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된 지 1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여 한국의 9개 서원과 관련 기관은 대대적인 축전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무성서원과 주변 마을 전경이 그려진 “칠광도(七狂圖)”의 가치에 주목하여 보물로 지정하고, 활용하기 위한 로드맵을 이슈브리핑으로 발간했다.
-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110년 전 무성서원을 품은 칠광도, 보물지정을 위한 도약』이라는 이슈브리핑(226호)을 통해 칠광도의 역사적 가치를 검토하고, 국가지정 문화재로 추진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 박정민 박사(연구책임)는 “칠광도의 작가는 어진(御眞) 화가로 유명한 석지(石芝) 채용신(蔡龍臣)으로, 최근 밝혀진 칠광도의 사실적 작풍과 역사적 의미를 보았을 때, 1910년 당시의 무성서원과 그 일대를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다” 고 밝혀냈다.
- 무성서원은 우리나라 유종(儒宗 ; 유학에 통달한 권위 있는 학자)이라는 최치원 선생을 모신 상징성과 함께 9개 서원 가운데 유일하게 마을과 함께 하는 공간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 무성서원의 고유한 특성을 잘 보여주는 칠광도는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당대 향촌 사회의 모습을 구현한 귀중한 자료로 충분히 국가문화재로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다.
- 또한, 9개 서원 가운데 조선시대 서원을 그린 그림은 도산서원과 무성서원밖에 없다. 도산서원과 관련된 그림은 보물 제522호의 「도산서원도(陶山書院圖)」와 천원 신권의 배경으로 유명한 보물 제585호의 『퇴우이선생진적(退尤李先生眞蹟)』에 포함된 「계상정거도(溪上靜居圖)」가 있다. 반면 그동안 무성서원이 그려진 칠광도는 문화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보물로 승격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밟고 무성서원의 역사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자료로 위상을 확보하여 각종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자료사진

